

# '20대 남성이 20대 여성보다 진보적'

재재

소제목: 20대 남성이 20대 여성보다 진보적. 단, 젠더 문제 빼고...

일반 온라인 여론조사는 20대, 30대, 40대를 대상으로 남녀를 구분해서 실시했다. 성별/연령별 구분으로는 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의 6개 집단으로 나뉜다.

이렇게 세분한 6개 집단별로 '우파 권위주의 성향' 및 '사회지배 성향' 수치를 산출해서 비교해봤다. 흔히 20대 남성의 보수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여겨지는 (징병제 군대 경험에 영향을 받았다고 흔히 추정되기도 하는) 4번 문항 '대북정책 선호 방향'도 6개 집단으로 나눠 세부적으로 들여다봤다. 7번 문항 '한국 사회 주요 갈등' 역시, 젊은 세대가 '젠더 갈등'을 택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고려하면서 6개 집단으로 나누어 살폈다.

여기서도 통념과는 사뭇 다른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최근 20대 남성은 '보수화'라는 틀에서 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이 6개 집단(20대 남성, 30대 남성, 40대 남성, 20대 여성, 30대 여성, 40대 여성) 중에서 **20대 남성이** 더불어민주당 지지 성향이 가장 약한 집단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정치 성향에 미치는 심리적 기질로 알려진 우파 권위주의 성향과 사회지배 성향 수치에선 20대 남성이 보수적이라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 사회지배 성향 수치에서 20대 남성은 오히려 6개 집단 중 가장 보수 성향이 덜할 것으로 추정됐다. 사회지배 성향 수치에서 20대 남성 다음으로 보수 성향이 덜할 것으로 추정된 것은 30대 남성이었다(그림 9).

우파 권위주의 성향 분포에서 20대 남성은 6개 집단 중에서 두 번째로 보수 성향이 강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수치에서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할 것으로 추정된 집단은 오히려 **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그림 8).

지금의 **20대 남성**은 대북정책 선호 방향으로 봐도 현격한 보수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굳이 해석한다면 다른 5개 집단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신안보 세대'라 불릴 만큼 특이하지는 않았다. 돌이켜보면, 신안보 세대'라는 조어 자체가 천안함 사건(2009년)과 연평도 해전(20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어쩌면 지금의 20대 남성보다는 30대 남성에게 성립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림 10).

이를 통해 추정해볼 때,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격차는 대체로 젠더 문제의 영향일 거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20대 남성이** 일반적으로 보수화되거나, 특별히 '일베'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사실 이제는 '일간베스트'란 홈페이지의 전성기 역시 거의 6~8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일이다), 젠더 문제가 **20대 남성의** 일각에게는 지지하는 정당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정도로 (여타 세대 남성들에게 그것이 가지는 가치보다) 큰 문제로 여겨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또한 정치 성향을 결정하는 심리적 기질 수치로 봤을 때 일반 응답자 집단보다 훨씬 동질적이었던 헬마우스 구독자층에서 젠더 갈등을 심각하게 본 이들의 비율 격차가 6개 집단 간에 훨씬 크게 도드라졌다는 점도 흥미로운 일이다. 40대보다는 30대, 30대보다는 20대가 젠더 갈등을 더 심각한 문제로 봤다. 이러한 연령대별 격차는 여성에게서 더 현격하게 나타났다. 헬마우스 구독자 층에서 격차가 더 컸다는 사실은 아마도 인터넷 활용이나 몰입 여부가 클수록 젠더 갈등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겼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 이탈 문제 때문에 20대 남성의 특수성이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남성보다는 여성이 젠더 갈등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아무래도 공포를 더 크게 느끼는)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시사IN>이 지난해 '20대 남성' 관련 심층조사를 통해 지적한바, 20대 남성들은 반페미니즘적 성향을 지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문제이며 그 부분만 콕 집어내 20대 남성의 정치 성향 자체가 보수화됐다고 분석하는 것은 선부를 수 있다.

시사IN VOL.664 p28~29(강조 표시는 내가 함)